

3/5/23

설교 제목: 금식하고 마음을 다하여 회개하라

전하는 이: 김순배 목사

말씀: 요엘 2 장 1-17 절

여호와와 날을 경고하는 메뚜기 떼

(을 2:1)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와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을 2:2)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 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음이라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으리로다 **절관주** 욥 1:6, 단 12:1, 막 13:19

(을 2:3)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들의 예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들의 나중의 땅은 황폐한 들 같으니 그것을 피한 자가 없도다

(을 2:4) ○그의 모양은 말 같고 그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절관주** 계 9:7

(을 2:5)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뛰는 소리는 병거 소리와도 같고 불꽃이 검불을 사르는 소리와도 같으며 강한 군사가 줄을 벌이고 싸우는 것 같으니 **절관주** 나 2:4, 나 3:2

(을 2:6) 그 앞에서 백성들이 질리고, 무리의 낮빛이 하얗졌도다 **절관주** 사 13:8

(을 2:7) 그들이 용사 같이 달리며 무사 같이 성을 기어 오르며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되 그 줄을 이탈하지 아니하며 **절관주** 삼하 2:18, 삼하 5:8, 잠 30:27

(을 2:8) 피차에 부딪치지 아니하고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며 무기를 돌파하고 나아가나 상하지 아니하며

(을 2:9) 성중에 뛰어 들어가며 성 위에 달리며 집에 기어 오르며 도둑 같이 창으로 들어가니 **절관주** 렘 9:21, 요 10:1

(을 2:10)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을 2:11)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와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라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을 2:12) ○여호와와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 (을 2:13)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 (을 2:14)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 (을 2:15)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 (을 2:16)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절관주** 출 19:10, 고전 7:5
- (을 2:17)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이방의 조롱 거리가 되지 말게 하옵소서 **절관주** 시 79:10, 시 115:2

하나님께서서는 남 유다에 닥친 메뚜기 재앙을 통하여 앞으로 다가올 여호와의 날 곧 심판의 날을 경고하고 당신의 백성들에게 금식하고 회개하여 당신께로 돌아올 것을 촉구하십니다.

하나님은 요엘 선지자에게 시온에서 나팔과 경고의 소리를 질러 여호와의 날이 임박하였음을 경고하라고 하십니다.

(을 2:1)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하나님의 거룩한 산은 시온을 가리킵니다.

그러니 시온과 하나님의 거룩한 산은 같은 곳입니다.

하나님은 임박한 여호와의 날을 백성들에게 나팔을 불어 알리라고 하십니다.

나팔은 은 나팔과 양각 나팔 두 가지가 있는데, 여기 나오는 나팔은 '소파르'로 양각 나팔을 가리킵니다. 양각 나팔은 왕의 등극이나 절기를 알릴 때, 혹은 전쟁과 같은 절박한 상황을 알릴 때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임박한 여호와의 날을 양각 나팔을 불어 알리라고 하신 것으로 보아 우리는 여호와의 날이 전쟁의 날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와 그의 날에 대한 묘사입니다.

여호와와 그의 날이 얼마나 끔찍하고 참혹한 날이 될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당장 메뚜기 떼로 말미암아 발생한 현상에 대해 묘사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메뚜기 재앙을 통해 장차 도래하게 될 여호와와 그의 날에 겪게 될 하나님의 심판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을 2:2)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 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음이라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으리로다

(을 2:3)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들의 예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들의 나중의 땅은 황폐한 들 같으니 그것을 피한 자가 없도다

메뚜기 떼와 가뭄이 불처럼 휩쓰는 바람에 젖과 꿀이 흐르던 가나안 땅은 황폐해졌습니다.

이것은 가까이 있는 대적 바벨론 침략으로 말미암아 유다 땅이 황폐하게 될 것을 예표하는 동시에
그날, 여호와와 그의 날에 일어날 대심판을 예표합니다.

메뚜기 떼를 전장에서 대열을 갖추어 싸우는 군대에 비유합니다.

(을 2:4) 그의 모양은 말 같고 그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을 2:5)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뛰는 소리는 병거 소리와도 같고 불꽃이 검불을 사르는
소리와도 같으며 강한 군사가 줄을 벌이고 싸우는 것 같으니

(을 2:6) 그 앞에서 백성들이 질리고, 무리의 낮빛이 하얗게 되도다

메뚜기 떼를 통해 장차 도래할 이방의 침입과 여호와와 그의 날에 닥칠 심판을 경고합니다.

유다의 힘으로는 도저히 당해낼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일사불란하고 거침없는 메뚜기 떼의 모습입니다.

(을 2:7) 그들이 용사 같이 달리며 무사 같이 성을 기어 오르며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되 그
줄을 이탈하지 아니하며

(을 2:8) 피차에 부딪치지 아니하고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며 무기를 돌파하고
나아가나 상하지 아니하며

(을 2:9) 성중에 뛰어 들어가며 성 위에 달리며 집에 기어 오르며 도둑 같이 창으로 들어가니
견고한 성읍도 결정적인 순간에 아무 쓸모가 없게 됩니다.

장차 가공할만한 위력을 가진 바벨론 군대가 유다를 쳐들어올 때에 일어날 일과 함께 여호와의 날에 일어날 종말적인 현상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무시무시하고 두려울 여호와의 날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에 일어날 일들입니다.

(을 2:10)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을 2:11)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라

그날은 심히 두려운 날이 될 것입니다.

땅이 흔들리고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이 빛을 거두어 온 세상이 캄캄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진두지휘하는 하늘의 군대가 나타나는데 아무도 당할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을 향해 금식하고 진정으로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십니다.

그들에게 아직 기회가 있다는 뜻입니다.

(을 2:12)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을 2:13)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을 2:14)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하나님께서서는 회개하되 의례적이고 형식적인 회개를 하지 말고, 마음에서 우러난 진정한 회개를 하라고 하십니다.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신 하나님께서 마음과 뜻을 돌이키셔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복을 내리셔서 여호와 하나님 당신께 소제와 전제를 드릴 수 있게 하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메뚜기 떼 출현과 가뭄으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소출이 끊어졌지만 유다 백성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땅을 회복시키고 소출이 생기게 하여 하나님께 다시 온전한 제사를 드릴수 있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회개는 옷을 찢는 것이 아니고 마음을 찢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옷을 수백 번, 수천 번 찢어도 마음을 찢지 않으면 그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는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 하시며, 인애가 크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받아주십니다.

누가복음 15 장에 돌아온 탕자를 받아 주는 아버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에 나오는 아버지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날, 여호와와 그의 날은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에게는 더 이상 무시무시한 심판의 날이 아니고 축제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은 자에게는 심판의 날, 멸망의 날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고 하십니다.

(을 2:15)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을 2:16)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이번에는 성회를 소집하기 위한 나팔을 불라고 하십니다.

백성들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되 장로부터 어린이와 젖먹이까지 남녀노소 모두 동참하게 하라고 합니다.

신랑과 신부도 예외가 없습니다.

당시 결혼을 하면 1년 동안은 군대에 소집되는 것이 면제가 되었으나 이번에는 면제가 되지 않습니다.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라'는 말의 정확한 의미는 '정한 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사장들에게 백성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을 2:17)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이방의 조롱 거리가 되지 말게 하옵소서

낭실은 성전 동쪽 출입구를 가리키고 제단은 번제단을 가리킵니다.

그러니 낭실과 제단 사이는 '제사장의 뜰'이라고 불리우는 곳을 말합니다.

이곳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지성소와 백성들이 모이는 곳의 중간 지점으로 제사장들의 기도 처소로 사용되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제사장들에게 이곳에서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인의 조롱거리가 되어 하나님의 명예가 실추되는 것을 막도록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심판 앞에서 죄인들은 하나님의 긍휼에 호소하는 것 외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늦어지는 것을 보고 그날이 없다고들 말합니다.

그것은 참으로 위험천만한 생각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 그리고 당신이 직접 분명 그날이 있음을 말씀하시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날은 무시무시한 심판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날은 사람들의 모든 행위들, 은밀한 행위들까지도 공의로 판단하시며 선악간에 보응하시는 진노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이 모든 사람에게 심판의 날, 진노의 날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금식과 마음을 찢는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 그날은 축제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날은 혼인 잔치의 날이 될 것입니다.

금식과 마음을 찢는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안에 거하는 자들은 그날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가 되어 하얀 세마포를 입고 신랑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거기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공의가 넘치는 나라입니다.

죽음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고 눈물도 없는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계 21:1)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계 21:2)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계 21:3)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계 21:4)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롬 2:4)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롬 2:5) 다만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 날에 임할 진노를 네게 쌓는도다

(롬 2:6)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롬 2:7)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롬 2:8)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인생은 마지막에 웃는 자가 승자입니다.

금식하고 마음을 다하여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하나님 안에 거하십시오!

그리하면 그날, 마지막 날, 여호와의 날, 여러분은 반드시 영원한 승리자가 될 것입니다.